

釜山廣域市宗親會 運營委員會議

부산광역시종친회(會長 權吉相)는 지난7월8일 오후18시30분 연산동 소재 해암부패에서 權永甲,權龍主,權永漢,大,宗,親,會,總,務,長, 權,正,守, 부회장을 비롯한 11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權正守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태사공님께망배, 상음례에 이어 權吉相 會長은 盛夏의 계절에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서두로 지난5월25일 제38차 정기총회(定期總會)를 대과없이 성료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원님들의 일치단결된 성심(誠心)이린 노력의 결과에 감사드리고 우리 종친회도 世態,世流에 미리 대처할

때 발전할 수 있다는 진리에 순응하여, 운영조직(運營組織)의 실질화, 산하9개 단체의 정례화 등은 미래지향적이라 생각하며 부녀회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로 표시하였다. 이어서 權永漢 대종원 부총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종친에게 축하를 보내고 총회 결과를 임원회의에서 보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는 칭찬의 격려사 후 사무국장의 정기총회 개



△부산종친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권길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보고가 있었다. 2부는 權德洙 자문위원의 우리 宗親會40年史발간 구상이라는 주제의 건배사와 만찬에 이어 權泰植 부회장의 사회로 부녀회와 함께하는 여흥시간으로 축의를 두텁게 하였다. <권운섭 사무국장>

안동종친회 임시총회 개최



△안동종친회 임시총회에서 권주연 신임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안동종친회(회장 권주연) 임시총회가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안기현로(태화동) 안동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고문, 부회장, 상임 및 운영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 이어, 권재주 전 회장 인사, 종친회장 인사, 대종원 상임부총재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주연 종친회장은 권재주 전 종친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안동종친회 이취와 사무과장은 은수저 한 발을, 안동종친회 안기동 권갑년 총무는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권재주 전 회장은 10여 년간 안

동종친회를 위해 일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자부하면서 지난번 6. 4 지방선거 때 안동시장과 시의원 4명 그리고 대구시장까지 졌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된 것이 권문(權門)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임 권주연 회장은 애족사상이 투철하고 권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으며 앞으로 일을 잘 할 것으로 믿는다며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도와주어야만 종친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동종친회를 영원히 잊지 못하며 전국에서 제일가는 종친회가 되도록 나도 돕지만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고 회의 때 많이 참석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권주연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37세(世)이며 부호장공파라고 자기를 밝히고 안동종친회에 참가한 지가 34년이나 되었으며 이 지역에 사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종원 권계동 상임부총재는 격려사에서 앞으로 우리 안동종친회가 전국의 많은 종친회 중에 으뜸가는 종친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하였다. 이어서 의안(議案)으로 채택된 금년도 안동종친회 복회(伏會) 개최 건과 회칙 개정 건을 심의하였다. 복회는 해마다 암산유원지에서 개최했으나 올해는 장소를 바꿔 인근 무릉유원지에서 오는 8월 23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칙 개정은 회장이 설명한 후 일부 수정하여 참석자의 찬반의견을 물어 통과시켰다. 권주연 신임 회장은 안동종친회 발전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내놓았다. 임시총회가 끝나고 참석자 전원은 회관 내 1층 <안동간고등어연밥상>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속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원격려 해주신 회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오늘 공로패는 회원님 모두에게 드려야 하나 원로고문 두 분에게 드렸습니다.” 라 하였다. 이어 회칙에 의거 총회 진행을 권정수 고문이 임시의장으로 임원개선에 들어가, 현 회장이 헌신적 봉사한 열성을 주지하여 유임으로 천거하였다. 이에 참석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어 감사도 유임기로 하였다. 이어 영석 회장의 수락인사와 경탁 사무국장의 사외에 따라 후속 사무국장 엄선에서 후임자 미결정관계로 정회(停會) 후 연임 회장의 임명사항으로 차후로 미루고 경탁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후 권오찬 감사의 감사보고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이후 본산악회는 임원개선후 사무국장 후속으로 7월 수락산행을 통하여 권병길(前 3,9회 총무역임)족친, 순용 부회장 등이 자진하여 맡기로 하고, 다음달 산행은 8월 17일 10시 서울대입구 만남의 광장에 집결 제28차 관악산행을 하기로 하였다. 산악회 임원구성은 아래와 같다. △회장:권영석 회장(유임) △감사:권오찬, 권종우(각각유임) △사무국장:권병길, 부국장:권순용(부회장 겸임) △등반대장:권오준, 권오의 <권범준 본원기자>

대구종친회 회장단 회의 개최

대구종친회(회장 권영하)는 2014년6월27일 오후7시 회장단회의(會長團會議)를 만부정식당에서 고문, 회장, 운영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종친회운영결과(宗親會運營結果)와 하반기 추진계획(推進計劃)을 재점검(點檢)하는 시간을 가지고 공석중인 사무국장(事務局長)에 총강조를 만장일치로 선출(選出)하고 특히 권영진대구시장 당선자가 참석하여 종친들로부터 많은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이에 시장당선자는 인사말에 선거기간 중 우리족친들의 열렬한 성원(聲援)에 깊이 감사한다고 하고 앞으로 대구종친회운영에도 적극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극참여(積極參與)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임원(任員)들은 화기에애(和氣霽霽)한 가운데 정담을 나누고 헤어졌다. <사무국장 권충강>

함께 권혁주 전 전국금속협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 지역 경대수국회의원 및 정영수도원의 자리를 함께해 축하 인사와 건배사가 있었다. 또한 서울에서 내려온 권계주 전국청.장년회협의회장과 권혁주 간사의 소개가 있었으며 특히 아들 형제와 함께 복학을 탈출한 권준순 여사가 참석을 하여 현 부학의 실상과 남한에서의 생활 소감을 듣는 뜻 깊은 자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를 주최한 권정옥 진천청.장년회장과 권순성 총무의 감사인사와 건배로 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2차로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의 진천 종친회 및 청.장년회의 발전 방안과 대종원과의 관계 증진을 논의한 후 6시경 아쉬움을 달래고 내년 청주전국체육대회 때 만나길 기약하며 산회를 하였다. <권혁구 청장년협의회간사>

진천종친회 하계단합대회



△진천종친회 하계 단합대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친회회장.장년회(권정옥 회장)는 7월 20일 일요일 11:30분 진천읍 읍내리 보양촌(권문성 종친식당)에서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철 보다 위에 종친회족친들의 건강 증진과 원기 회복을 위한 “진천 종친회 하계 단합대회”를 개최 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서

너회, 청.장년회 회원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정성껏 마련한 닭백숙으로 물여름 더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권순성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후 권오섭 종친회장의 내빈 인사 소개 및 환영 인사말과 권혁풍 청주종친회장의 축사와

올을 위시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자리를 함께 했고, 진천종친회 원 및 부녀회, 청.장년회 회원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정성껏 마련한 닭백숙으로 물여름 더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권순성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후 권오섭 종친회장의 내빈 인사 소개 및 환영 인사말과 권혁풍 청주종친회장의 축사와

여주삼육회원 시조묘소참배



△여주삼육회원이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에 살고 있는 내외 종간인 안동권씨삼육회원(회장 권광치) 42명이 안동태사묘와 능동양소, 북야공파조단소를 참배하기 위하여 7월 19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여주를 출발하여 안동에 도착하였다. 안동권씨 36세(世)를 상징(象徴)하며 삼육회(三六會)로 한 이 모임은 6촌까지 참여할 수 있는 내외종간의 모임이라고 한다.

삼육회원은 안동태사묘(安東太師廟)에 도착하여 권혁남씨가 관복(冠服)을 갖추고 태사묘 권영목씨의 안내에 따라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헌작(獻爵)하고 함께 알묘(謁廟)하였다. 알묘를 마치고 태사묘우 앞 잔디밭에서 가족끼리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엄정희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움에래 보물각(寶物閣)에 있는 삼태사의 유물과 공민왕이 하사(下賜)한 고리 때 보물을 포함하여 모두 11종 22점의 귀중한 유물

(遺物)을 관람하였다. 어머니가 안동권씨인 이태훈군은 “태사묘우를 처음 보니 엄마의 시조를 알 수 있는 기쁨이 되어 무엇보다도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참배단은 이날 30대 넘는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서후면 능동으로 가서 시조묘소와 남중공단소에서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참배를 한 권승민군(18 회계원고 2년)은 “조상의 소중한 가치를 처음 알게 되었다.”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안동시 송현동 <묵향>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참배단은 서후면 교리에 위치한 북야공파조단소를 참배한 후 오후 3시경 안동하회마을을 둘러보고 여주로 떠났다. 권광치 삼육회장은 “형제간의 우의와 친목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훌륭한 조상님의 발자취를 보여 줌으로써 산교육이 될 것 같아서 토요일 안동에 왔다.”고 말하였다. <보도부장 권영진>

서울산악회 제20차 정총

권영석 회장연임



△2014. 6. 15 오후 1시 서울 군자역 인근 능동아구찜 식당에서 서울 산악회 제20차 정기총회간 권영석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서울산악회(회장 권영석)는 지난 6월15일 오전10시, 광진구 중곡역에서 40여명이 집결, 인근 아차산 산행을 등반 후 1시 30분경 총회 장소인 능동아구찜 식당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진행은 권경탁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태사공 망배 이어 영석 회장은 그동안의 ‘회’ 발전에 공이 큰 원로 회원 권종우 고문(32회, 추밀공파, 현 문화재 신라불

교건축 대표)과 노령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권혁찬 고문(85. 36회, 추밀공파)에게 수여하여, 회원 모두 축하박수를 보냈다. 이어 영석 회장의 인사로 “먼저 더운 날씨 건 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원님께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聲援)하에 어언 2년이란 세월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본년도 열성적으로 송조이념을 받들어 열정을 기울였지만 부족 한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낌없이 후

안동능곡회 월례회

안동능곡회(회장 권영훈)는 지난 6월27일 오후7시 안동시 옥동 소재 오복식당에서 부부동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의 월례회를 개

최했다. 권기춘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 행사에 이어 권영훈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감사의 감사보고와 총

무의 경과, 결산 보고가 있었다. 기타토의 후 회사에 들어가 회원간의 종의를 더욱 두텁게 했다. <권혁세 기자>

풍산종친회 정기총회

새회장에 권호명씨 선출

풍산종친회는 지난 4월 15일 풍산읍 황소곳간 식당에서 권오주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석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오주 회장의 인사와 권재주 안동종친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감사보고와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후 임원 선출에 들어가 권오명씨가 새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어 신임인사가 있었으며 기타토의로 행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였다. <권혁세 기자>

동정

▲권오근 국제유교전법재판소 부소장(61)은 6일 대법원 주최로 7-10일 열리는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법협력’ 국제법률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했다. 3시간이 넘게 이어진 인터뷰는 동아일보 최영훈 논설위원과 김정훈 사회부장이 진행했다.

▲권오을(3선, 전 국회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이후 지난 20(일) 12시30분 TV채널A에서 ‘새누리선장’ 김무성, 승리원동력은 무엇인가?란 주제에 특별출연으로 진행 뉴스특보로 방영 보도되었다.

▲권순주 기업은행장은 ‘탈북민 창업 지원이 통일 준비 첫 걸음’이라는 논제로 지난 15일자 중앙일보 경제view에서 “더 이상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수년 내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현실이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준비가 시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 비로소 우리 앞에 산적한 다양한 통일 과제들이 모색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는 동안 민간도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주민은 2만 6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도록 탈북민을 성공적인 기업가로 육성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 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수요회 2014년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23일 오전 11시 시 송현동에 위치한 묵향에서 열린 안동수요회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계획 등을 설명하고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준모 내시삼십삼분 의장은 자신을 ‘연쇄창업자’라 말한다. 지금껏 몇 차례 창업을 통해 기업을 최고에 올려놓았고 창업하려는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만큼 주목받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권준모 내시삼십삼분 의장은 자신을 ‘연쇄창업자’라 말한다. 지금껏 몇 차례 창업을 통해 기업을 최고에 올려놓았고 창업하려는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만큼 주목받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권준모 내시삼십삼분 의장은 자신을 ‘연쇄창업자’라 말한다. 지금껏 몇 차례 창업을 통해 기업을 최고에 올려놓았고 창업하려는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만큼 주목받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역단신

권태강 검교공파총회장 부인 월소(月澍) 윤태희 서예가 제31회 대한민국서화대전 추사

체입선 대표수상 지난 7월9일, 서울시립 경희공미술관에서 열린 제31회 대한민국 서화대전에서 추사체입선(41명중) 대표로 수상했다. 평소 윤여사는 가정에서도 훈훈한 현모양처이며 부군인 권태강 족친은 권문(權門)에서도 수범(垂範)적 파총회장으로써 임하고 있다. <권범준 기자>